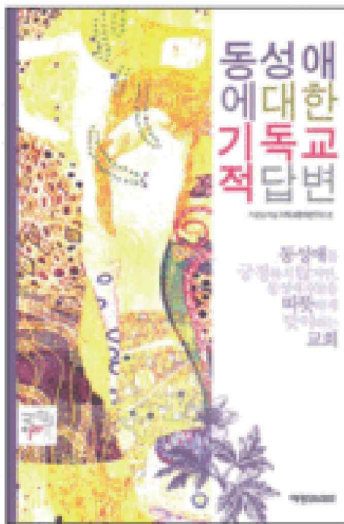


동성애를 긍정하진 않지만 동성애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교회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

☉ 노영상



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편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1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본 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권고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종교계의 반대 표명으로 야기된 격론에 대해, 차분히 반성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1월 인권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 17인으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년 8월 추진위 안을 마련한바 있었다. 인권위원회는 이 안을 보강하여 최종적으로 2006년 7월에 권고법안을 내놓았다. 그 후 2007년 7월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되었으며, 법무부는 이 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각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2007년 12월 13일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부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은 인권단체들은 2007년 11월 28일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진행한 끝에 자체로 새로운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반차별 공동행동은 2008년 1월 28일 당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통해 별도로 마련한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발의한바 있다. 이렇게 하여 차별금지법안은 세 개가 되게 되었다. 인권위가 2006년 7월 만든 권고법안, 2007년 12월 13일 정부가 내놓은 정부법안, 그리고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를 중심으로 한 반차별 공동행동 측의 차별금지법안 등이다. 이 같은 찬성과 반대의 양자 의견 사이엔 여러 부분에서의 이견이 있지만, 그 중 논란의 핵심이 되었던 부분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문제 곧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였던 것으로 본 책의 목적은 이 문제를 정돈하려는 데 있었다.

동성애에 관한 세 가지 입장

동성애 문제를 다룰 때의 세 가지의 입장이 있다. 동성애를 일종의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의 문제로 보는 견해와 질병으로 보는 견해, 그리고 죄의 한 가지로 보는 견해이다. 동성애를 일종의 정신적 질병으로 보는 견해는 동성애를 인간의 건강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아 치료의 객체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나 동성애를 일종의 성적 지향으로 보는 견해는 동성애를 퇴치하거나 치료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일종의 인간 나름의 특이한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동성애를 일종의 질병으로나 또는 성적 지향으로 보기보다는 죄의 하나로 보며, 동성애자를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한 죄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물론 동성애자뿐 아니라 인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며 그런 죄인의 입장에서 동성애자들을 역시 다른 죄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 책은 이 가운데 성경의 입장에 많이 치중되어 동성애를 논하고 있다.

이 책은 이 같은 최근 우리 사회의 동성애 문제에 대한 논란에 대해 기독교계의 다양한 입장들을 정리하려는 취지에서 구상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최근 우리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분위기는 송해룡 교수와 강진구 교수의 및 장현일 사무총장의 글들에서 잘 드러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제1부에서는 '오늘의 문화 속에 나타난 동성애 문제'를 언급하였다. 제2부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반성'의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 제3부는 '동성애 문제와 교회의 법적이며 목회적인 실천'이라는 제하에서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회의 실천적 대응의 문제를 다루었다.

여러 원고들을 모아 책으로 묶으며, 우리는 기독교계의 대강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었다. 본 책의 부제에서와 같이, '동성애를 긍정하지 않지만, 동성애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교회'가 본 책의 전체적인 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먼저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배정훈, 소기천, 곽재욱, 정원범 교수 등이 이 일을 맡아 수행하였는바,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성경이 동성애를 긍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물론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의 학자들은 동성애 반대에 대한 성경구절들을 자신들의 견지에서 해석하지만, 여러 가지 성경의 맥락에서 볼 때 그러한 주장이 타당성이 없음을 필자들은 언급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동성애를 긍정하진 않지만, 동성애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려 하고 있음에 대한 입장이 여러 교수들의 글에서 발견된다. 이상억 교수와 박성관 교수의 글은 이 같은 입장을 잘 반영하였다. 교회는 동성애를 찬성하진 않지만,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목회적이고 치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이 논문들은 잘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약자 및 소수자로 생각하여 보호해야 하는지를 김호경, 김진 교수가 잘 설명하였다. 김호경 교수는 여성신학적 입장에서 동성애 속에 내재하여 있는 힘의 논리를 분석하며 동성애 논란의 본질을 파헤치려 하였으며, 윤리학자인 김진 교수는 덕윤리학의 한 부류인 배려의 윤리학의 입장에서 동성애를 관찰하려 하였다. 동성애를 규범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배려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나, 그 배려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함을 김 교수는 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동성애 관련법의 논의를 위해 기반이 되는 문제들이 검토된 다음, 박중운 변호사와 노영상 교수는 작금의 동성애에 관한 법제화 논란의 문제를 추적하였다. 박중운 변호사는 성전환자 관련 법률 제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구하였으며, 노영상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 상의 '성적 지향'이란 단어를 삽입하는 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 두 논문은 모두 동성애를 긍정하진 않지만,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제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있다.

금년 5월 본 책을 만드는 중 미국장로교회(PCUSA) 헌법의 '치리형식(The Form of Government)' G-6.0106-.0108의 b항에 대한 수정이 찬성 373표, 반대 323표 기권 4표로 통과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부분은 동성애자의 교회직분 임명에 대한 규정인데, 기존의 헌법 내용 중 남자와 여자 간의 결혼 언약 안에서 충실하게 사는 자에게만이 교회의 직분이 주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동성애자가 교회의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된 것이다. 향후 이러한 미국장로교회의 결정은 미국의 한인교회들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거니와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바, 이 책의 그러한 논의들에 큰 참고가 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몇 가지 한계들

그럼에도 이 책엔 몇 가지의 한계가 있다. 여러 필자들의 글을 모은 것이어서 동일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필자들마다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동성애에 대한 견해가 동일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이기도 하다. 보수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약간은 진보적인 입장도 표출되어 있어서, 나름의 결론을 독자 스스로 내리도록 의도되어 있다.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미국교회들에서의 동성애 문제에 대한 논쟁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최근의 미국장로교회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미국교회들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약자로서의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아쉬움이다. 물론 몇몇의 필자가 이 문제에 대해 다루기는 하였지만 설득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이 후일 개정될 때 이런 문제들이 참조된다면 더욱 완성도를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노영상 기독교윤리학자, 서울대를 졸업하고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대학원 졸업,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신학박사(Th.D.) 학위를 받았으며 컬럼비아신학교(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연구교수를 지내고, 호남신학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영성과 윤리』, 『경건과 윤리』, 『예배와 인간행동』 등이 있으며 “신학사적 조망에 따른 기독교윤리학 방법론에 대한 고찰”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